



Deloitte Newsletter

업계 주요 뉴스

회계, Tax, M&A 등 관련 업계의 주요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강성원 회계사회장 "IT·법률 융합 전문가로 성장"

강성원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1월 6일 신년사를 통해 "공인회계사 직무에 대한 가치 증진과 새로운 일거리 창출, 감사품질 제고, 보수현실화 등 회계산업의 발전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강 회장은 "국내경기 침체로 회계업계가 어려운 한 해를 보냈지만 학교법인과 공동주택에 대한 외부감사 의무화와 감사인 지정제 확대, 재무제표 대리작성 금지 제도화 등 비정상적인 관행을 바로잡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며 지난 해를 평가했으며, 또한 적정 감사시간을 투입해 감사품질을 높여나가고 회계와 세무, 경영, IT, 법률 등 전 산업을 망라한 융합형 전문가로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외부감사 보고서에 회계사 등 감사 참여 직급별 인원·감사시간 기재해야

앞으로 회사의 외부감사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일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보고서를 첨부할 때 감사에 참여한 인원의 수와 감사시간, 감사업무내용 등을 기재하도록 시행규칙이 개정됐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은 12월 30일 외부감사 실시내용의 기재서식을 신설하는 등의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설된 외부감사 서식에는 감사에 참여한 인원을 담당이사와 등록공인회계사, 수습공인회계사 등으로 구분해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감사계획과 현장감사, 재고자산 실사, 외부조회 등으로 구분해 구체적인 감사 내용을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M&A 시장 패러다임 바뀐다...소싱보다 PMI 중요"

국내 M&A 시장 플레이어들의 역량이 날로 성숙되면서 성공적인 M&A 달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즉 저평가된 회사를 낮은 가격에 인수한 후 높은 가격에 매각하는 식의 정보 비대칭성을 노린 M&A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환경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각 주체 측면에서는 부실기업 강제 구조조정, 자발적 구조조정, 구조조정 후 재매각딜은 2014년에 이어 2015년에도 M&A 시장을 이끌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역량과 전문성을 확보한 대기업 및 사모펀드의 증가로 M&A 시장 경쟁은 계속 치열해지고 있으며, M&A 딜 자체는 점차 증가하는 있고 이 같은 추세는 2015년에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EY 한영, 기업 비상경영 상황에 대비한 조직 개편 단행

EY 한영이 경제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과 인력운용을 대통 합하는 등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1월 15일 EY 한영은 감사 인력을 200명 이상 대폭 확충함과 동시에 기존에 산업별, 전문 서비스 별 부서 간 장벽을 없애고 통합 운영함으로써 감사 고객과 비감사 고객에 대한 토탈 서비스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직 개편으로 한영이 보유한 1700여 명의 전문 인력이 기업의 감사를 넘어 경영 전반에 대해 종합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종전까지 감사업무는 감사본부 회계사들만이 전담해 왔지만 개편에 따라 세무 이슈를 담당할 세무본부 회계사와 IT 시스템 관련 분야를 담당할 IT 컨설팅 부문 회계사 등 관련부서 회계사가 각각의 전문성을 가지고 감사팀에 합류하는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EY 한영회계법인 대표에 서진석 현 감사본부장

지난 달 28일 EY 한영회계법인은 서진석 현 감사본부장을 차기 대표이사로 선임했습니다. 서 대표는 1965년 생으로 연세대 경영학과, 경영대학원을 졸업했으며, 1990년 EY 한영에 입사해 감사, 재무자문, 컨설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았습니다. 서 대표는 "2020년에는 매출 5000억원, 전문인력 4000명 달성이란 'Vision 2020' 실현을 위해 회계 컨설팅 서비스의 고도화와 우수 인재 확보 등에 계속해서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社 1병영 삼일회계법인이 국방부 장관 감사패

삼일회계법인이 한국경제신문과 국방부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1사 1병영 운동에 적극 참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방부 장관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정재학 육군 제 13공수특전여단장(육군 준장)은 2월 12일 서울 한강로 삼일회계법인 본사를 방문해 안경태 회계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삼일회계법인은 2012년 1사 1병영 운동에 참여한 뒤 부대 체육관 보수 공사비를 후원했고, 매년 우수 부대원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등 부대와 교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핀테크 시장 우리도 동참"... IT 컨설팅 업계 핀테크 컨설팅 시장 공략 나서

IT 컨설팅 업체들이 핀테크(FinTech) 시장 진출을 노리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컨설팅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스타트업은 물론 대기업들까지 핀테크 시장을 주목하고 있는 상황에서 핀테크 컨설팅 영역을 개척해 새로운 시장으로 키워내겠다는 전략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달 15일 올해 핀테크 산업에 대한 정책금융기관의 지원자금을 2000억 원 이상 조성한다는 계획과 함께, 관계부처 협업(금융위, 금감원, 미래부, 중기청 등)으로 핀테크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車시장 점유율 상승 기대 1위 기업은 현대·기아차"

KPMG는 지난달 19일 글로벌 자동차산업 동향보고서를 통해 현대·기아차(78%)는 독일 대표 자동차 기업인 폭스바겐(75%)과 러시아 최대 자동차 기업인 아브토바즈(71%)를 제치고 2020년까지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에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선진국의 완성차 업체 경영진들은 2020년까지 대형차 판매량이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 반면 신흥국 완성차 업체 경영진들은 모든 차량에서 상당한 판매 증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소형 및 중형차 판매 증가가 픽업,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등 대형차

판매보다 더 빠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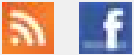
중견련, 4 대 회계법인과 중기 M&A 시장 활성화 이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견련)는 지난 달 27 일 중견련 M&A 지원센터, 국내 4 대 회계법인(삼일, 삼정, 안진, 한영<가나다순>)과 중견 중소기업 M&A 시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중견련 M&A 지원센터와 각 회계법인들은 △상호 정보교류 및 비밀유지 체계의 구축 △시장참여자들의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M&A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 △컨설팅 제공 등의 업무에 협력하게 됩니다. 협약식에 이어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중견·중소 M&A 자문시장의 낮은 수익성으로 인한 시장주도자 부재와,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현실적 한계 극복을 위한 방안 모색에 집중했습니다.

IB 전문가 "올해 최고 M&A 딜은 홈플러스, KT 렌탈, 동양시멘트"예상

투자은행(IB) 전문가들은 올해 가장 관심 있는 인수합병(M&A)시장 매물로 국내 2 위 대형마트인 홈플러스를 꼽았습니다. 또한 가장 이목이 집중되는 기업공개(IPO) 예상 기업으로는 현대자동차 계열 광고회사 이노션이 선정됐습니다. 한경 마켓인사이트가 IB 분야 전문가 53 명을 대상으로 '올해 M&A 시장에서 주목 받을 기업'을 설문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은 응답자(27%)가 홈플러스를 꼽았고 그 다음으로 국내 1 위 렌터카업체 KT 렌탈(17%), 국내 2 위 시멘트업체 동양시멘트(12%), 수도권 최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C&M(10%) 등이 상위 그룹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Deloitte Korea](#) | [RSS](#)



[Deloitte Anjin LLC & Deloitte Consulting](#)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서울국제금융센터 One IFC 빌딩 9 층
150-945

딜로이트 투쉬 토마츠와 그 회원사들의 네트워크는 법적으로 독립된 조직입니다. 딜로이트 투쉬 토마츠와 각 회원사의 법적인 구조에 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www.deloitte.com/kr/about 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4. For information, contact Deloitte Anjin LLC & Deloitte Consulting